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블룸버그 설문, 미국 소비 지출 내년 초에 줄어든다
- Bloomberg: 엘런 재무장관, “미국 경제 연착륙에 낙관적”
- WSJ: 연준 금리 입장에 중요한 변화 진행중
- WSJ: 미 인플레이션 2% 달성, 얼마나 어려운가
- WSJ: 트럼프 재임시 관세 정책의 진실

[뉴저지]

- CNN Business: 연방 법무부 “뉴저지주 재향군인 요양원 방치로 코비드 확산”

[부동산]

- CNBC: 주택 미소유 미국인들 “계약금에 대한 여유금 부족”

[자동차]

- CNN Business: “전기차, 가솔린차 대체하는 데 수십 년 걸린다”

[에너지]

- Bloomberg: 미 태양광, 문제점도 동반한다

[의료]

- WSJ: 일반 복제약에 보험사 수천달러 부과한다

[글로벌 경제]

- WSJ: 글로벌 무역서 미국과 인도 점유율↑

[미국 교육]

- CNN Business: 교수 부족 대처 위해 교실 두배 늘리고 온라인 교사 활용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왜 9 to 5 근무 인가? 8시간 근무 제도의 역사
- WSJ: 퀄컴, 2026년까지 애플에 모뎀칩 공급
- CNN Business: BMW, 미니 생산에 7백 50만불 투자계획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The Mighty American Consumer Is About to Hit a Wall, Investors Say

블룸버그 설문, 미국 소비 지출 내년 초에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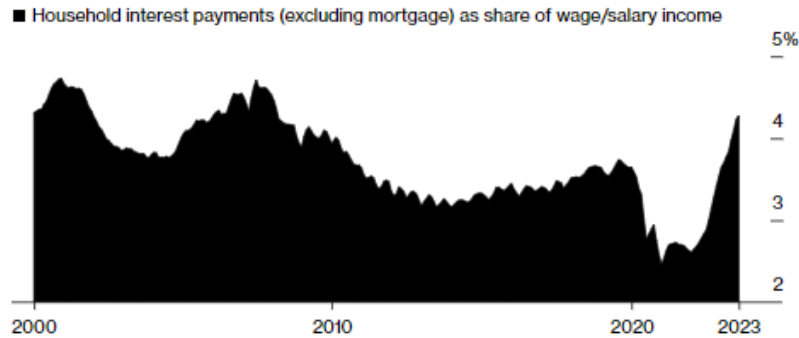
- 당초 생각보다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막아온 미 소비가 결국 흔들리게 된다. 이는 블룸버그의 마켓 라이프 펄스 설문 결과 밝혀졌다.
- 응답자 5백26명의 과반수가 답변하기를 경제 성장의 엔진인 개인 지출이 2024년 초반에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첫 분기 별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답변자 21%는 높은 용자 비용이 가계 예산을 줄여

코로나 시대 저축이 고갈되면서 올해 마지막 분기에 더 빨리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 이같은 설문 조사 결과는 올 여름 대부분 기간 동안에 미 주식 시장에 퍼졌던 낙관론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주식 시장은 낙관론은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이다.

High Rates Eat Into Household Budgets

Debt payments are taking up a growing share of US household incomes -- even before the freeze on student-loan interest ended this month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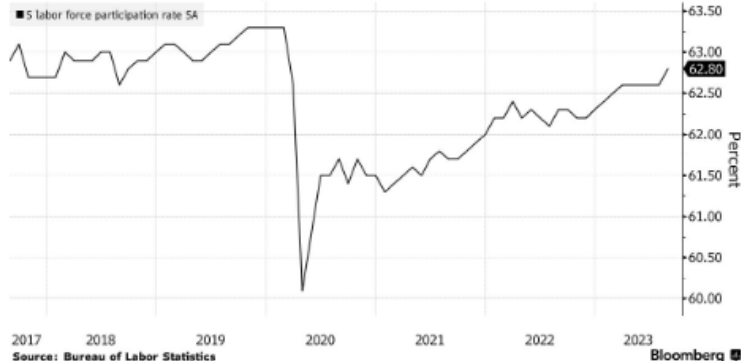
Bloomberg: Yellen ‘Feeling Very Good’ About Soft Landing for US Economy

엘런 재무장관, “ 미국 경제 연착륙에 낙관적”

- 재닛 엘런 연방재무장관은 일자리 시장의 큰 타격없이 인플레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가 꾸준히 둔화되고 구직자가 새로 유입되는 지표들을 환영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 그는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억제되는 길로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그는 G-20 정상회의로 부터 귀국길에 인터뷰에서 주요 신흥국(BRICS) 그룹에 영향력을 늘리려는 중국의 시도에 따른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G-20는 계속해서 글로벌 협력을 위한 최고의 포럼”이라고 덧붙였다.

US Sees Ri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returned to February 2020 levels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Bloomberg 기사

WSJ: An Important Shift in Fed Officials' Rate Stance Is Under Way 연준 금리 입장에 중요한 변화 진행중

- 요지: 중앙은행은 9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 추가 금리 필요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연준 관리들은 최근 1년 이상에 대해 금리를 너무 적게 올리기 보다는 더 많이 올려야겠다는 점에 모두 합의했다. 지속적인 고물가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입장이 바뀌고 있다.
- 일부 관리들은 여전히 금리를 많이 올린 후에 추후에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선호한다.
- 그러나 이제 다른 관리들은 보다 균형잡힌 입장이다. 금리를 올려 불필요한 경기 침체나 금융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하고 있다.
- 이처럼 균형잡힌 입장으로 바뀌는 이유는 인플레이 둔화와 노동 시장이 덜 가열됐다는 지표들 때문이며 더욱이 지난 1년 반동안 시행된 급격한 금리 인상이 향후 수개월간 수요에 타격을 계속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WSJ 기사

WSJ: How Hard Should the Fed Squeeze to Reach 2% Inflation? 인플레이 2% 달성, 얼마나 어려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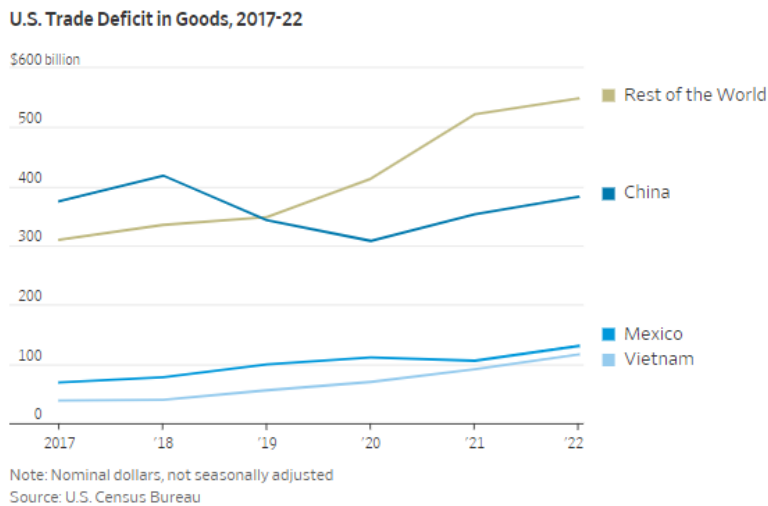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끝났다. 40년 동안 가장 가팔랐던 금리 인상 속에 인플레이션 수치는 9.1%에서 3.2%로 떨어졌다.
- 연준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더 인상하고, 경제가 악화될 때에 금리를 천천히 낮춤으로써 목표치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경기 하강을 더 크게 유발할 위험성이 있고,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을 없앨 수도 있다.
- 반대로, 인플레이 수치가 연준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면, 현재의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금리를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 수치에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대략 3년 정도가 필요하다.
-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의 초점은 실질 금리이다. 이것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는 금리가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의미한다. 연준의 목표는 이런 실질금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 “인플레이션 수치가 하락할 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어느 지점까지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고 뉴욕 연방 총재 John Williams는 올해 초에 인터뷰에서 말했다.
-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 수치가 목표치보다 높은 2.6%로 떨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내년엔 금리가 1%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WSJ 기사

WSJ: Trump’s Real Trade Record 트럼프 재임시 관세 정책의 진실

-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시행되던 해인 2018년 이후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멕시코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적자는 증가했다.
- 트럼프가 재임에들어간 해인 2017년 이후,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의 명목상 수입액은 베트남에서 174%, 대만에서 116% 방글라데시에서 96% 태국에서 89% 인도에서 76% 한국에서 62%로 각각 증가했다.
- Tax Foundation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0%의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 해 3천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예상되는 무역보복을 포함한다면, 미국의 경제는 1.1%까지 위축하고, 82만 5천여개의 일자리 또한 위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베트남, 한국 그리고 미국의 다른 파트너국가들에 대한 10% 관세 타격은 이들 국가를 중국경제의 영향력 안에 방치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며, 이것은 미국의 지리적 전략적 이익과 반대된다.



WSJ 기사

[뉴저지]

CNN Business: Ongoing neglect in New Jersey's state-run veteran nursing homes allowed Covid-19 to spread 'virtually unchecked,' DOJ investigation finds

연방 법무부 “뉴저지주 재향군인 요양원 방치로 코비드 확산”

- 지난주 목요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뉴저지 주에서 운영되는 두 곳의 재향군인 요양원이 지속적으로 방치 되었다.
- 기본적인 위생 및 감염 관리가 부족했던 것.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 감염이 사실상 확인되지 않아 재향군인의 헌법적 권리가 계속 침해되고 있었다.
- 2020년 7월까지 이 시설에서 총 146명의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되었지만, 연방 수사관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직원들은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고, 감염된 거주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공용 공간과 침실 소독을 하지 않는 등 여러 잘못된 관행을 저질렀다.

CNN Business 기사

[부동산]

CNBC: Americans who don't own a home say they lack savings for a down payment, CNBC survey finds

주택 미소유 미국인들 “계약금에 대한 여유금 부족”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미국인 중 약 40%가 계약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 부족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 현재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40만 불이다. 계약금으로 8만 불이 필요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주택 가격의 20%.
- 하지만 “실제로 일반 첫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은 20% 미만”이라고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 Jessica Lautz가 말했다.
- 그는 사람들이 첫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금으로 6~7%만 지불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ATTOM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단독주택 평균 계약금은 7.5%이다.

CNBC 기사

[자동차]

CNN Business: Electric cars are breaking sales records, but here's why they're not replacing gas cars anytime soon

“전기차, 가솔린차 대체하는 데 수십 년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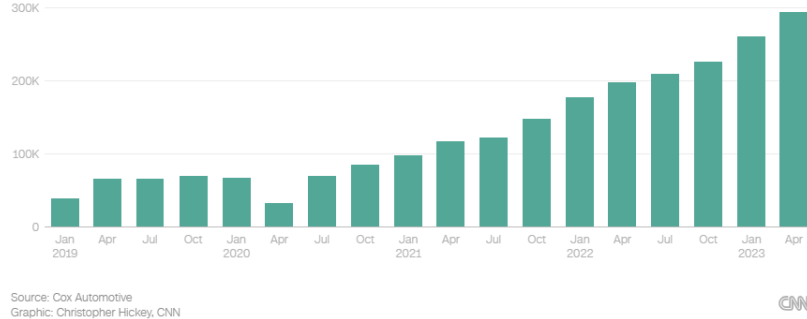
- 지난 몇 년 동안 전기차 판매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왔고, 올해에는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었다. 2분기에 거의 3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 되었

다. 이는 사상 최고치.

-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격 인하, 다양한 차량 출시, 정부 및 제조업체의 투자 확대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전기차 판매가 촉진되고 있다.

Americans bought more electric vehicles in the second quarter than in all of 2019
Roughly 295,000 EVs were sold between April and June 2023 — a new record.

Number of battery-electric vehicles sold in the United States, by fiscal qua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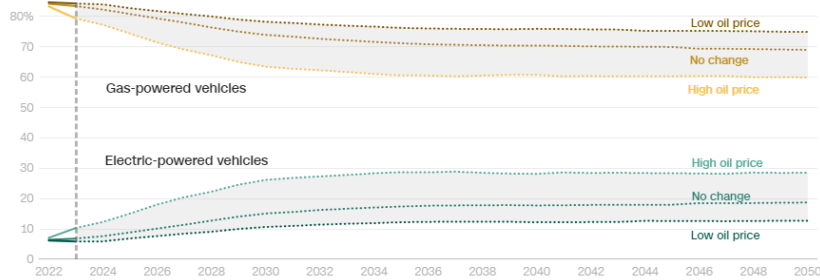


- 하지만 미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대다수의 구매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US agency predicts an EV-majority market won't happen anytime soon

Even under a scenario with high oil prices, electric vehicles will account for less than a third of car and truck sales through 2050, according to projections from the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Gas-powered and electric vehicle market share projections, 2022-2050



- 7월 평균 전기차 가격은 53,469불로 전체 차량의 평균 가격인 48,334불에 비해 높은 금액이다.
- 또한 전기차 구매 고려자들이 가격 다음으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충전소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전미자동차혁신연합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미국 전역에 약 13만 4천 개의 충전소가 있다. 충전기 대 자동차 비율 7:1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충전기 수의 2.5배를 전국에 설치해야 한다.
- 지리적 격차도 심한 편이다. 미국 전체 공공 충전 인프라의 약 30%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다. 신규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캘리포니아가 훨씬 높다. 전기차가 전체 경상용차 판매량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 유일한 시장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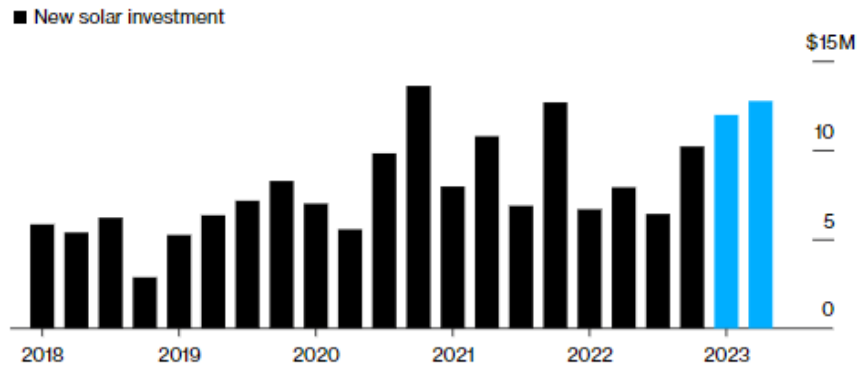
[에너지]

Bloomberg: US Solar’s Extraordinary Boom Brings Growing Pains
미 태양광, 문제점도 동반한다

- 미국 태양광 부문은 올해 32기가와트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2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이다.
- 이러한 성장은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RA에서 제공하는 세금 인센티브에 힘입어 설치가 약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US Solar Investment Sets Six Month Record

New solar projects saw \$24.7 billion of investment in first half of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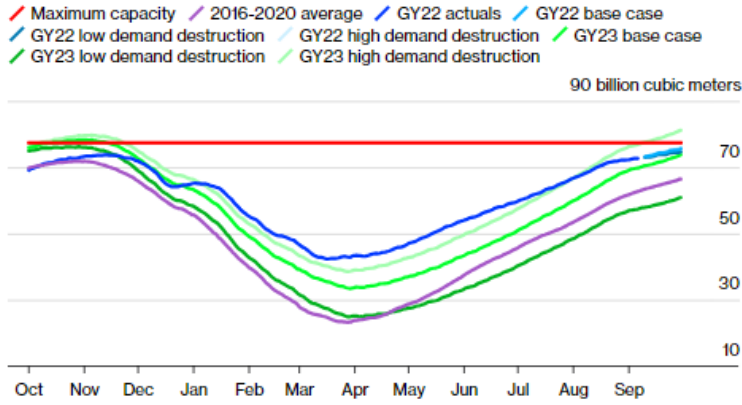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NEF
 Note: Excludes solar thermal investment

-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새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었고, 개발 붐으로 그리드 연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진 것.
-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는 전력망 운영자들이 전력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생겼다고 말했다. 텍사스는 지난주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정전 사태에 직면할 뻔 했다.
-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태양광 개발업체가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추가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 하나”라며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NEF 분석가인 Pol Lezcano가 말했다.

Chart of the day

Europe's underground gas storage inventories



Source: BloombergNEF
 Note: "GY" is gas year, a 12-month period starting from October 1. "Europe" refers to the BNEF Europe Perimeter - Northwest Europe, Italy and Austria.

Bloomberg 기사

[의료]

WSJ: Generic Drugs Should Be Cheap, but Insurers Are Charging Thousands of Dollars for Them

일반 복제약에 보험사 수천달러 부과한다

- 고가의 의약품에 특허가 끝나면 저렴한 일반 복제약이 나오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다.
- 그러나 암, 다발성 경화증이나 다른 복잡한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복제약은 매달 수천달러씩 소요된다.
- 항암제 Gleevec는 2016년 복제약으로 출시되어 한달에 55달러에 구입 가능하지만, 많은 환자들의 보험 플랜은 1백배 이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 CVD Health와 Cigna는 이 약에 대해 한달에 6천6백불 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개 보험사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약국과 함께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들 두개의 일반 복제약 가격은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의 청구 가격보다 평균 24배 이상 높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다.
- 이들 회사들은 약국과 지역에 따라 약품 가격이 다르다며 보험을 통한 본인 부담금은 적다고 말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WSJ: Trade Slump Reshuffles World's Economic Cards in Favor of U.S.

글로벌 무역서 미국과 인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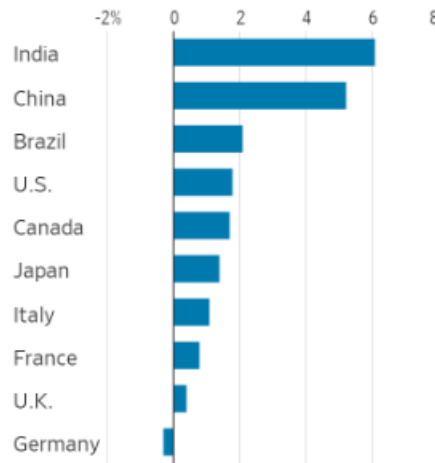
- 미국과 인도 경제는 활기를 띠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는 뒤처지고 있다. 애틀랜타 연준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6%, 인도는 4~6월동안 7.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 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의 최근 분기 성장률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성장세를 밑돌고 있다.
- 무역 부진은 금리 및 생활비 상승, 기업 재고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게다가 중국 성장률 둔화, 서구의 보수적 산업 정책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글로벌 무역은 더 글로벌해질 것”이라며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베렌버그 은행 이코노미스트 Holger Schmieding이 말했다.
- 또한 상품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며, 독일과 중국 같은 제조업 강국을 대신해 IT 및 기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과 인도 같은 경제에 활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untries that export fewer goods are performing better relative to peers.



Source: World Bank

2023 GDP growth for top 10 economies, projected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SJ 기사

[미국 교육]

CNN Business: Doubling up on classrooms, using online teachers and turning to support staff: How schools are dealing with the ongoing teacher shortage

교수 부족 대처 위해 교실 두배 늘리고 온라인 교사 활용

- 올 가을 새학기가 시작돼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교사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 이러다보니 교실은 두배로 늘리고, 온라인 강좌로 전환되는 데다 무자격 교사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주정부들이 교사 자격증의 기준을 낮추면서 교육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같은 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이 팬데믹때 부족한 학습이 회복하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 한 예로 텍사스주 랭커스터 학교 식당에는 교사 부족으로, 생물학 시간에 두개의 9학년 학급 50명이 과학 교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맞은편에는 아직 자격증 프로그램에 있는 교사가 소그룹 수업을 돕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BNC Business: Why do we work 9 to 5? The history of the eight-hour workday

왜 9 to 5 근무 인가? 8시간 근무 제도의 역사

- 미국에 8시간 근무 문화가 자리잡은 것은 특정 노동단체나 산업과 기업 그리고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노동행위와 정치적 타협과, 진보적인 사업가들 그리고 경제적 경쟁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물에서부터 비롯했다.
- 과거에 사람들은 평소 일주일에 6일을 근무했는데, 대략 하루에 12시간 일을 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노동시간은 1919년 9월에 일어난 노동파업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Wake Forest 대학의 Robert Whaples 교수는 말했다.
- 헨리포드의 자동차 회사 포드는 주 5일 8시간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며, 1938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서명했는데, 이는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주가 반드시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코로나 팬데믹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업무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을 되돌아보도록 만들었다.

CNN Business 기사

WSJ: Qualcomm Inks Deal With Apple to Supply iPhone Chips Through 2026

퀄컴, 2026년까지 애플에 모뎀칩 공급

- 퀄컴이 3년간 애플에 5G 모뎀칩을 공급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애플이 오랜 기간 동안 자체 개발한 모뎀칩이 애플의 최신기종에 사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 오늘 월요일 아침 퀄컴의 주가는 4.1% 상승한 110.52\$를 기록했다. 애플의 경우 47센트가 상승한 178.61\$이다.
- 그러나, 퀄컴은 2026년에는 애플에 오직 20%의 모뎀칩만을 공급하면서, 앞으로의 판매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WSJ 기사

CNN Business: BMW will invest \$750 million to keep making the Mini in Oxford

BMW, 미니 생산에 7백 50만불 투자계획

- BMW가 영국에서 새로운 두 버전인 전기차 버전인 미니(Mini)를 생산하기 위해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 3도어 미니쿠퍼(Mini Cooper)와 미니 에이스맨(Mini Aceman)의 생산이 2026년에 옥스포드와 스윈던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직 전기차량만이 생산될 것이라고 기업관계자는 말했다.
- BMW의 주가는 새로운 투자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1.3% 상승했다. 영국 정부는 자금 지원을 통해 옥스포드와 스윈던의 4천 여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가 영국에서 전기차량과 부속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엘런 미재무,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매우 좋은 느낌"

미 투자자들, 이번주 CPI·소매판매·PPI 발표 주목

재닛 엘런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꾸준히 둔화하고 새로운 구직자가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엘런 장관은 10일(현지시간) 과거 물가를 억제하면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그러한 예측과 관련해 느낌이 매우 좋다"며 "우리는 정확하게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기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